



수베로 감독

### 韓야구 불문율 차이 안다더니 불문율에 흥분한 수베로 감독

3월 인터뷰서 “감정적 대응 생기지 않게 점검”  
17일 NC전에선 10점차 3B 상황 타격에 격분

“불문율도 점검해야 한다.” 한국야구가 처음인 한화 이글스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은 2~3월 스프링캠프 동안 다양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가장 급한 한화 선수들의 기량과 성향 파악은 물론 타 팀 선수들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KBO리그의 규칙과 규정 등도 상세히 살폈다.

모든 것이 처음이기에 수베로 감독으로서 일일이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았다. 이 가운데는 ‘불문율’도 포함돼 있었다. 남미와 미국의 야구만을 오래 경험한 수베로 감독에게는 동양야구, 특히 KBO리그의 불문율은 낯설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17일 창원 NC 다이노스전에서 수베로 감독이 불문율과 관련해 감정적 모습을 보이면서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수베로 감독은 3월 연습경기를 앞두고 취재진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KIA 타이거즈 맷 윌리엄스 감독 역시 지휘봉을 잡은 첫 해에 KBO리그의 불문율을 놓고 여러 가지를 궁금해 했다. 수베로 감독이 이에 대비하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당시 그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며 대답에 앞서 스스로 다시 한번 강조했다. 수베로 감독은 “한국, 미국, 남미 야구가 모두 다르다. 불문율에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안다. 한국은 무엇이 다른지 이번 실전(연습경기)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그래야 감정적 대응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베로 감독의 의중대로 KBO리그의 불문율을 연습경기에선 모두 점검할 수는 없었다. 연습경기는 어디까지나 선수들의 컨디션을 점검하는 게 먼저였다. 살얼음판 대결인 정규시즌과는 마주하는 상황도, 그 속에서 나오는 불문율의 형태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

KBO리그는 18일까지 이제 정규시즌 10경기를 조금 넘게 소화했다. 수베로 감독이 진짜 실전에서 ‘차이’를 알아가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경기를 소화할수록 이와 관련된 부분은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감정적 대응으로 상대 덕아웃을 자극할 필요는 분명 없다. 이런 부분 역시 수베로 감독으로서 다시 한번 되짚어볼 포인트다. 정윤성 기자 award@donga.com

### ML 미네소타 선수 2명·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메이저리그 미네소타 트윈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18일(한국시간)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애너하임 에인절스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네소타-LA 에인절스의 경기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미네소타 로코 발텔리 감독은 “외야수 카일 갈릭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다른 선수와 구단 직원 한 명도 확진됐다”고 설명했다. 미네소타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5일 유격수 안드렐톤 시몬스가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에 들어갔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미네소타 선수단의 추가 검사와 역학 조사를 위해 이날(18일) 경기를 취소한다. 19일 경기도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올 시즌 개막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메이저리그 경기가 열리는 못한 것은 이번이 2번째다. 개막 직전 워싱턴 내셔널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뉴욕 메츠와 개막 3연전을 포함해 4경기가 연기된 바 있다. 최용석 기자 gyong@donga.com



두산 조수행 “폭투 기회 놓칠 수 없지”

두산 1루주자 조수행(오른쪽)이 18일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LG전 1회초 2사 1루서 상대 선발투수 이민호의 폭투 때 2루에 슬라이딩하며 들어가고 있다. 왼쪽은 2루 커비에 나선 LG 유격수 구본혁. 잠실 | 김종원 기자won@donga.com

### 두산, 9-1로 잠실 라이벌 LG 꺾고 위닝시리즈

# 센터 전멸? 위기에 더 강한 두산 화수분

오재원·김재호·박세혁·정수빈 이탈  
안재석·조수행, 공수에서 활약 뽐내  
포수 장승현 2경기 2실점 만점리드  
선발 전원 안타로 화수분의 힘 증명

화수분 야구. 십수 년째 두산 베이스를 상징하는 문구다. 두산이 곧 한국야구의 요람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정상급 선수들을 배출했다. 이제는 화수분이 마를 때도 됐다. 지금은 화수분이 마를 때도 됐다. 셋째 아이를 얻은 김재호는 16일 경조사 휴가를 썼다. 같은 날 경기 중에는 포수 박세혁이 상대 투구에 얼굴을 맞아 안와 골절상, 중견수 정수빈이 내복사근 손상을 입었다. 박세혁은 장기이탈이 불가피하고, 정수빈도 복귀까지 열흘 이상은 필요하다. 김재호와 오재원은 복귀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두산은 18일 잠실 LG 트윈스전에서 9-1로 이겨 올 시즌 첫 ‘한 자붕 두 가족’ 매치에서 위닝시리즈를 따냈다. 승률 5할

로 한 주를 마감했고, 시즌 성적도 7승 6패(승률 0.538)를 마크했다. 선발투수 아리엘 미란다가 5이닝 무실점에도 투구수 113개로 에이스 역할을 해내지 못했지만, 타선과 수비의 힘이 그 아쉬움을 채웠다.

시즌 초부터 주전들이 줄 부상을 당했음에도 백업의 힘으로 만들어낸 성과다. 특히 팀의 척추로 불리는 센터라인에 부상이 집중됐다. ‘캡틴’ 오재원은 흉부 타박상 여파로 10일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셋째 아이를 얻은 김재호는 16일 경조사 휴가를 썼다. 같은 날 경기 중에는 포수 박세혁이 상대 투구에 얼굴을 맞아 안와 골절상, 중견수 정수빈이 내복사근 손상을 입었다. 박세혁은 장기이탈이 불가피하고, 정수빈도 복귀까지 열흘 이상은 필요하다. 김재호와 오재원은 복귀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장승현

만, 센터 라인이 붕괴된 채로 라이벌과 마주했다. 두산 김태형 감독은 16일 잠실 LG전에서 0-1로 패한 뒤 백업 선수들을 불렀다. 이 자리에서 그는 “누가 너희들의 포지션을 물어보면 ‘백업입니다’라고 할 것인가. 경기에 나가면 주전이다. 주전 선수답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감독은 “기회가 오면 잡아야 한다. ‘백업으로서 이 정도 했다’고 웃으며 집에 가선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감독의 일침은 시리즈 뒤집기의 거름이었다. 17일 경기에선 유격수 안재석과 중견수 조수행의 엄청난 수비를 앞세워 3-1 승리를 거뒀다. 18일 경기에서도 이들의 활약은 이어졌다. 0-0으로 맞선 2회초 대거 6득점으로 초반에 승패를 갈

랐는데, 이 과정에서 안재석과 조수행은 출루로 흐름을 이었다.

박세혁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마스크를 쓴 포수 장승현도 이틀간 18이닝 2실점으로 투수진을 리드했다. 안재석이 5타수 1안타 1득점, 조수행이 4타수 1안타 2볼넷 1도루 2득점, 박세혁이 2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백업들이 대거 출장한 18일 경기에서 두산의 올 시즌 첫 선발 전원안타가 나왔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다시 화수분이 채워졌다. 주축들이 돌아오기까지 시간을 버는 개념이 아니다. 그라운드 위에선 동등한 자격으로 전쟁을 펼치는 것이다. 그들의 싸움이 치열해질수록 두산은 강해진다. 십수 년간 증명해온 두산의 강팀 제조 법칙이 유효해 시동을 걸고 있다.

잠실 | 최억재 기자 ing17@donga.com

## 비정규직 불펜포수까지...NC, 120명에게 ‘우승 반지’ 전달

시즌 30일 이상 등록 선수에도 지급  
KS 엔트리엔 ‘집행검’ 트로피까지

144경기+6경기. 지난해 NC 다이노스가 창단 첫 정규시즌-한국시리즈(KS) 통합우승을 일구는 데는 150경기가 필요했다. 정규시즌에만 33명의 투수와 28명의 야수가 최소 한 차례는 그라운드를 밟았다. 우승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기여도의 차이는 분명하지만, 모두의 힘이 더해져 만든 결과라는 것은 분명하다. 팀을 떠난 이들은 물론 비정규직 현장 스태프까지 그 공로를 인정 받은 것은, NC 스스로가 ‘V1’을 팀 다이노스의 합작품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다. NC는 17일 창원 한화 이글스전에 앞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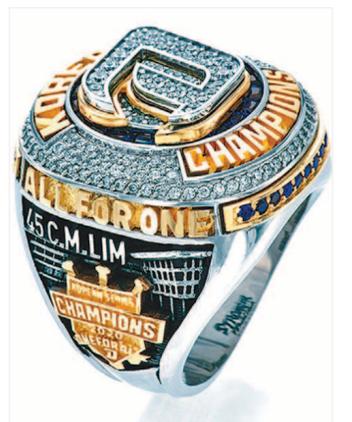
지난해 통합우승을 기념하고 의미를 나누기 위해 ‘챔피언스 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1군 선수단은 훈련을 앞두고 우승반지 전달식을 가졌다. 창단 첫 우승의 상징인 만큼 프런트에서도 심혈을 기울였다.

반지 제작에만 약 4개월이 걸렸다. 18K와 10K 골드를 통 크게 활용했다. 국내 최초의 공법을 도입해 반지 안쪽에 ‘STRONGER TOGETHER’라는 문구와 KS 전적을 새겼다. 선수 이니셜과 등번호도 넣었고, KS 엔트리에 포함된 선수와 코칭스태프에게는 ‘집행검’ 트로피 케이스까지 지급했다.

지급대상의 폭은 넓었다. KS 엔트리에 든 선수 30명과 1·2군 코칭스태프 20명, 프런트 56명이 포함됐다. 여기에 지난해 정

규시즌 동안 30일 이상 등록된 14명을 추가로 챙겼다. 지난 시즌을 끝으로 NC를 떠난 이들도 기준에 부합된다면 반지를 받는다. 지난해 29경기에서 11승을 기록했지만 올해 재계약이 불발된 외국인선수 마이크 라이트는 물론 KS 직후 트레이드로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은 이상호도 대상이다.

비정규직 현장 스태프까지 챙겼다. 그들이 흘린 땀의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창진 불펜포수는 “학창시절에도 우승이라는 경험을 못해봤다. NC 소속으로 팀의 첫 통합우승을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스럽다”며 “선수가 아니지만 우승반지를 받게 된 건 너무 큰 의미가 있다. 올해도 V2를 위해 달리는 선수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억재 기자



NC는 지난해 정규시즌-한국시리즈 통합우승을 기념해 제작한 반지를 17일 창원 한화전에 앞서 선수단 및 프런트에 지급했다. 우승 주역들뿐 아니라 불펜포수를 비롯한 현장 지원스태프에게까지 통 크게 인심을 썼다. 사진제공 | NC 다이노스

## SSG 르위키 부상 공백 2년차 오원석이 메운다

내복사근 미세 손상...3주 휴식  
김원형 감독 “1+1은 고려 안해”

SSG 랜더스가 외국인투수 아티 르위키(29)의 공백을 2년차 좌완투수 오원석(20)으로 메운다. SSG 김원형 감독은 18일 인천 KIA 타이거즈전에 앞서 “오원석이 선발로테이션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르위키는 16일 인천 KIA전에 선발등판했으나, 1.1이닝(2안타 1볼넷 2삼진 2실점)



오원석

만에 교체됐다. 정밀검진 결과 오른쪽 내복사근 미세손상으로 3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첫 2경기에서 모두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를 작성했던 르위키의 공백은 SSG에 큰 약재다. 대체자로 낙점 받은 오원석은 야탑고 출신으로 지난해 신인드래프트에서 1차지명을 받은 기대주다. 직구 최고 구속은 140km대 초반으로 빠르진 않지만, 슬라이더와 체인 지엄, 커브 등 변화구의 완성도가 높다. 제구도 안정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원석은 시즌 첫 등판이었던 7일 인천 한화 이글스전에선 1이닝 4실점으로 부진했으나, 그 뒤 4경기에선 6.1이닝 동안 3안타 무4사구 9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특히 15일 인천 NC 다이노스전에선 4이닝 1안타 무4사구 5삼진 무실점으로 데뷔 첫 승

을 따냈다. 김 감독은 “(오원석의) 선발 투입 시점을 보고 있었다”며 “원석이 중간에서 첫 경기를 제외하면 더 좋았다. 어느 시점에 활용할지 고민했고, 스프링캠프 때도 선발 후보로 분류하고 훈련했다”고 설명했다.

오원석이 선발투수로도 제 몫을 해준다면 더 바람직하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김 감독은 “탠덤(1+1)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매 경기 선발투수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 선발투수가 무너지면 중간에도 과부하가 걸리는 만큼 늘 대비해야 한다. 퓨처스(2군)팀에서 정수민, 김경빈 등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